

2023 년 7 월 9 일 “여호수아(11) 평생의 소명”(수 13:1-7)

수 13 장부터는 가나안 유업의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눅 12:32, 마 25:34)을 예시하는 구약 사건입니다.

[1] ‘너는 늙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늙었다고 말씀하십니다(1 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소명의 다른 단계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늙는 것을 싫어하지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판단의 말보다 수용과 긍정의 말이 많아지고,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비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 장에서 인생의 여러 때를 언급합니다(3:1-11 ‘알맞게’ -> ‘아름답게’(개역개정)). 삶의 모든 때에 알맞고 아름다운 것이 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치는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 즉 소명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이란 감당해야 할 일을 포함하여 부르신 모든 때 속에서 경이를 발견하고 감탄함으로써 생명의 힘을 받고 발휘하며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2] 소명과 상속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1 절) 그런데 이 땅의 민족들은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6 절).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상속하라)는 것입니다(6-7 절).

<여호수아의 소명 2 단계>

여호수아의 첫째 소명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수 1:2). 둘째 소명은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수 13:7). 이 두 소명은 연결성이 있지만, 둘째 소명으로 들어갈 때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유업을 나누는 일로서 매우 복된 일입니다.

<성도의 소명 2 단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후로부터 세월과 함께 주어진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은 첫째, 편협성, 교만, 시기... 등과 같은 부정적 성품이며, 둘째, 쉼과 재충전의 실패입니다. 삶의 소명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늙어갈 지라도 무가치한 때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쟁취의 소명 1 단계를 감당한 후에는 새국면의 경이의 차원을 바라보는 믿음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명 2 단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공생애 사역 중에는 온 지역을 다니시며 왕성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했던 생애 끝자락에 닥친 십자가 죽음은 수치와 폭력을 당하며 무력하게 아무 유익과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사역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멸적인 십자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구원의 경이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 속에 감추어진 죄사함과 사랑의 경이가 성도 안에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유업의 쟁취와 나눔의 인생 속에는 아름다운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대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에는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때에 주어진 소명의 진선미의 가치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여호수아의 소명의 두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도의 삶에 비추다면 어떤 특징을 가리킵니까?
2. 나의 신앙 생활에서 받고 누리는 유업의 즐거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것을 떠올려보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말씀해 봅시다.